# 오등봉공원 협상대상자 행정심판 돌입

##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제주 방문 현장검증 실시
## 공무원 '임의적·자의적인 행정 여부' 조사 주목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S종합건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주를 방문해 제주도청, H건설, S종합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등봉공원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현장검증일로부터 2주내 청구인(S종합건설) 및 피청구인(제주도), 참가인(H건설)의 모든 서류제출 및 주장을 마감하겠다. 이후는 접수하지 않겠다. 2주내 상호간 주장을 마감하고 올해말 또는 내년 1월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S종합건설은 행정심판위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들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이 있었다"며 이런 "자의적인 밀실행정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S종합건설은 제주자치도 공모지침에 '(공원시행)사업대상은 한천,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하되, 비공원사업지(주거단지)로 국공유지가 포함될 (예외적)경우, (해당 국공유지에 대한)별도의 매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재정비 방안에서도 이 지역(한천, 한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은 기시설 조성지로 존치지역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모 참여제안자 7개 중 6개 업체는 공모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대상인 국공유지상 기존 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했으나, H건설컨소시엄만 유일하게 제외대상 국공유지상 기존 공원시설인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전체를 재건축 및 재시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에서 제안심사위원회의 비계량평가점수까지 임의로 조작까지 하면서 H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엄격한 사실조사로 제주자치도의 자의적인 밀실행정에 대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부지(9만5426㎡)에는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해 총 1630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15층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청암기업(주), (주)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주), 미주종합건설(주) 4개사 등이 참여하는 H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준비서면 제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행정심판도 지연된다"며 "현재 제주도에서 올라온 것들 중에는 1년이 지난 사건들도 있다. 오등봉공원 행정심판이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서귀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계 공모… 내달 3일까지

서귀포시는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의 설계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설계 공모 참여 자격은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해 관련 업무 신고를 마친 업체로, 관련법에 근거해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등록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분야별정보→건축/도시/토지→건축 설계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설계공모 참가등록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접수한다. 12월 4일 오후 2시에는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신축 예정지인 동홍동에서 설계공모 현장설명회가 진행된다. 설계공모안은 내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내년 1월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설계안을 발표하게 된다.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에는 총사업비 305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2023년 완공 목표로 연면적 6200㎡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며, 공연장·전시실·강의실·수영장·다목적강당을 포함한 복합센터로 조성된다.

현영종기자

**겨울로 성큼** 강한 찬바람에 체감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23일 제주시 봉개동 절물휴양림을 찾은 탐방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시스템 개선으로 가로등 민원 줄어

### 양방향 원격시스템 선제 대응

가로등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양방향제어시스템이 도입·추진되면서 가로등 고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가로등 시스템 집중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 2018년부터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로등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제실에서 가로등의 실시간 점·소등 뿐 아니라 가로등의 상태·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사업은 서귀포지역 모든 읍·면·동에 관제시스템과 함께 분전함 560여곳·가로등 1만4000개 등을 연결하는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첫 해인 2018년에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213곳에 분전함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보안등 1280개와 중계기 24개를 시설했다. 내년에도 국비 등을 활용해 미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며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같은 시스템을 활용, 지난 2019년 한햇동안 지역 내 가로등 2100개를 자체보수했다. 또 올해에도 1400여개를 대상으로 자체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며 가로등 관련 민원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내 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가로등 관련 민원은 2~3년 전에는 한 달 평균 3~5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엔 관련 민원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도 대부분 가로등 점·소등 시간이나 밝기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현영종기자

**2020 제주愛 빠지다** ⑬ 박상호·박정경씨 가족

세 아이와 함께 제주살이를 꾸려가고 있는 박상호(오른쪽) 박정경씨 부부. 백금탁기자

## 다섯 식구가 함께 부르는 제주찬가

### "남편은 음악카페 운영… 아내는 동화작가"
### 발달장애아동 위한 책쓰기·사회활동 열중

제주에선 겨울이면 붉은 동백꽃이 더 아름다운 이유가 있다. 차가운 날씨에도 제 색깔을 내며 피어나는 동백꽃처럼 지난 6년 힘든 제주살이를 잘 견뎌온 가족이 있다.

박상호(50)·박정경(45) 부부와 성하(12), 그리고 쌍둥이 건하(9)·정하(9) 삼형제 등 모두 다섯 식구다. 2015년 제주에서 1년만 살자던 가족들에게 6년이라는 시간은 가족애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주는 이젠 떠나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향이 됐다. 부부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제주살이는 "만족"이다.

지난 시간들이 모두 행복한 순간만은 아니었다. 남편 상호씨는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2년에 이어 복직 후에도 3년간 제주와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지난해 말, 20년 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롯이 가족 모두와 제주살이에 열중하고 있다. 최근 광양초등학교 앞에 '20세기 소년'이라는 음악카페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제주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하나둘 모아온 LP판 7000장과 CD 3000장을 소유하고 있는 마니아다.

"대학 때부터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했고, 그 외에도 제주여행을 참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제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주문처럼 하곤 했었죠. 요즘은 숲길, 올레길, 둘레길, 오름 탐방에 재미를 붙였고 현재 오름 170~180곳을 오른 것 같은데 앞으로 제주의 오름 전체를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진행형이지만 제주살이는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이 다 자라면 퇴직금으로 마련한 (제주시 한경면)고산 땅에서 전원생활하면서 작은 음악카페를 운영하며 지낼까 생각 중입니다."

'부창부수'다. 동화작가인 부인인 정경씨도 남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삼형제를 키우고 책을 쓰느라 제주살이는 그리 녹록치 않았다. 낯선 땅, 사람, 언어 등 모두가 처음 대하는 막연함이 힘겨웠지만 특유의 외향적 성격을 발휘하며 이제는 '제주사람'이 다 됐다.

그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둘째아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과 부모로서의 미안함을 담은 그림책 '엄마는 너를 위해'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아동 부모 모임 '제주아이 특별한 아이' 회원들과 공동 제작한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태양을 보다' 등에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에서의 삶의 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에 정착한 가장 큰 계기는 아이들 때문이었죠. 둘째 건하처럼 제주도 내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육아와 돌봄, 교육과 직업훈련, 직업인으로서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별난 고양이의 꿈밭'을 만들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칼바람을 이겨내는 동백꽃은 추운 겨울이 오면 노란 동박새를 위해 달콤한 꿀을 만들어 내어준다. 이들 부부들도 이처럼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값진 삶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한발 한발 다지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